

공화국은 위대한 전통과 계승으로 강하다

이 행성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걸음걸음 최대의 시련과 역경을 헤쳐가는 나라는 공화국뿐이다. 남들같은 번세 열백번은 더 무너졌을 최악의 난관도 불사조처럼 이겨내며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역세게 나아가는 조선이다. 과연 조선은 무엇으로 그리고도 흔들리지 않으며 강대한 것인가. 그 무엇으로 공화국은 단 한순간의 추종도 모르고 끝없이 융하는 힘과 열정으로 불의가 판을 치는 이 행성에서 가장 떳떳하게, 가장 용감하게 자기의 꿈

과 리상을 향해 그리도 도도히 전진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장립 75돐 기념행사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이 성대한 기념행사에 몸소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기념연설로 장내를 격정으로 뽐내시고 그로부터 며칠후 또다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며 따뜻한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누구나의 가슴을 한없는 격정으로 높르게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 자애로운 그 음성,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무한한 행복으로 온 세상이 부러움에 밝은 웃음을 지으며 자기들의 씩씩한 모습을 뽐내는 혁명학원 원아들과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힘찬 결의를 다지는 졸업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겨안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특유의 강대함, 그 근원과 밝은 앞날에 대한 확신이다.

1

뿌리가 튼튼해야 거목이 자란다. 나라마다 나라대로의 근원을 가지고있지만 공화국처럼 그렇게 역세고, 그렇게 굳건하며, 그렇게 위대한 뿌리를 가지고있는 나라는 없다. 그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백두의 혁명전통이다. 카를의 진명학교 교실을 밝히던 남포동의 불빛이 눈앞에 어려온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었다.

「나는 조선의 산 현실에 부합되는 옳은 지도리론을 내놓자면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지도리론을 마련한다고 하여 10월혁명의 경험같은 것을 통채로 받아들여도 안되었고 국제당이 어떤 만병통치의 처방을 가져다줄것같이 기대하면서 팔짱을 끼고있어있어도 안되었다. <우리가 믿을것은 인민대중의 힘밖에 없다. 2천만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하나로 묶어세워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혈전을 벌리자.>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위침이 자주 울리었다. 나는 이런 충동을 안고 오늘 우리가 주체라는 이름을 달아서 부르 고있는 사상을 보고의 구절구절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오한 사색과 탐구속에 찾으신

주체사상의 출발점이었다. 주체19(1930)년 6월 30일, 주체사상의 원리가 천명된 력사의 이 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반만년민족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진 존엄있고 긍지높은 민족으로 되었고 세기를 이어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오늘날 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자주, 자립, 자위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하여 공화국인민은 자주강국의 인민이 되어 존엄과 영예를 떨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자주, 자립, 자위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하여 공화국인민은 자주강국의 인민이 되어 존엄과 영예를 떨칠 수 있게 되었다. 온 세계가 경탄하여마지 않는 공화국의 불가사의한 힘, 공화국 특유의 투쟁방식인 자강력의 기초도 주체사상이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일부 사람들이 일제와 싸우려면 수류탄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큰 나라에 자그마한 수류탄공장설비를 보내줄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청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해결해주지 못하겠다고나 해결할수 없다는 통지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자체로 병기창을 꾸리는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꾸려진 백두의 병기창에서 일제를 전복케 한 연결 폭탄이 만들어졌다. 연결폭탄정신은 오늘날 공화국을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남들이 보란듯이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공화국이 걸어온 전 행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오한 사색과 탐구속에 찾으신

은 긍지스러운 력사이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힘에 대해 생각할 때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시의 한구절이 있다. 가마축의 물은 뚫다가도 없 어진다— 원천이 없거니— 허나 내물은 대하를 이룬다 동무들! 우리는 대하가 되려나 바다가 되려나 우리의 근간도 민중속에 우리의 힘도 민중속에 있다! 민중과 혈연을 한가지한 빨치산임을 우리 잊었는가? 우리 이것을 잊고 어찌 대사를 이루랴! 민중과의 분리— 이것은 우리의 멸망 이것을 왜놈들이 꾀한다 우리 이것을 모르고 어찌 대사를 이루랴! ...

공화국의 유명한 시인 조기천이 쓴 장편서사시 《백두산》 제4장에서 여러날째 굶은 부대의 전우들을 위해 소를 끌어온 최석준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의 전 과정에 철저히 견지하여오신 원칙이었다. 항일대전의 나날에 창조된 군민대단결의 이 위대한 힘이 오늘에도 공화국의 거대한 힘이 되어 창조와 전변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오늘날 공화국은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들을 강행돌파해나가고있다. 악성비루스의 류입이라는 건국 이래 대동란도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최단기간내에 평정했고 부흥강국으로 향한 들머리로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열어나가고있다. 참으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전통을 억년 드느니 않는 깊고 역세 뿌리로 하

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위업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가지 못한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위업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그 위대한 전통으로 무장하면 사상과 정신의 강자가 되고 온갖 어려움을 뚫고헤쳐나가는 승리자가 되기에 공화국의 남녘로소는 오늘도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찾아가간다. 그리고 백두의 칼바람에서 백년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투쟁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 투사들의 강인한 정신과 의지를 새기고 밀림속의 구호나무들에서 백두에서 창조된 투쟁전통을 잊지 말고 대를 이어 빛내야 한다. 투사들의 절절한 당부를 듣는다.

2

공화국은 백두의 혁명전통의 줄기찬 계승으로 날로 더욱 강대해지고있다.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위업계승을 최우선으로 여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도 세세대대를 불굴의 혁명투사로 키우시었고 해방후 건국에 앞서, 건국에 앞서 유자녀들을 위한 혁명학원부터 세워주시고 거기서 혁명유자녀들을 혁명을 떠메고나갈 기동감들로 키우시었다. 주체37(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에 참석하였던 남조선대표들과 기자들이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았을 때였다. 일행에는 백범 김도도 있었다. 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김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의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각지로 사람을 띄워 산지사방에 흩어져있던 유자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어 공부시키고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고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지난날 중국 남방에서 독립군 사령으로 있었던 량세봉의 아들을 알아보고

는 그를 덥석 그러안고 내가 정말 량세봉의 아들이 틀림없다고 격정을 터뜨렸다. 그날 김도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내 늦게나마 장군님의 령도 따라 미군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내가 잘 싸우면 우리 후대들도 이런 좋은 학원에서 공부할수 있겠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구 한사람의 심정만이 아니었다. 학원을 돌아본 모든 사람들이 이에들어아말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는 나라의 기둥이라고 찬탄해마지 않았다. 정말 그랬다. 혁명학원 원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부모들의 넋을 꿋꿋이 이어가는 기동감들로 씩씩하게 자라났다. 주체37(1948)년 9월 어느날 만경대에 나오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제복을 입은 혁명학원 원아들이 보고싶으시어 몸소 차까지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도록 하시었다. 만경대 학교실 사립문을 열고 들어서며 씩씩하게 인사를 올리는 원아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아들에게 방후 건국에 앞서, 건국에 앞서 유자녀들을 위한 혁명학원부터 세워주시고 거기서 혁명유자녀들을 혁명을 떠메고나갈 기동감들로 키우시었다.

붉은 줄은 학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칠없이 대답올리는 한 원아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학생들은 제복에 붉은 줄을 띤 뜻을 잘 알아야 한다고, 제복의 팔소매에 띤 붉은 줄은 붉은 혁명선열들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표시이라고, 그런 뜻에서 제복의 바지에도 붉은 줄을 꿋 꿋 꿋했다고 교시하시었다. 원아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부를 잘 하여 부모들의 뜻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날의 가르치심에는 혁명학원 학생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애국충신들로 키우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웠다. 위대한 김정원수님께서도 언제나 혁명유자녀들을 훌륭히 교양육성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주체86(1997)년 설날아침, 우리 아이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가봐야 하겠다고, 안가면 아이들이 섭섭해한다고 하시며 하늘을 메우며 간담없이 쏟아져내리는 진눈깨비와 몰아치는 눈보라속을 뚫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 떠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이으시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도 혁명유자녀들을 민족자주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들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고 계신다.

언제나 혁명학원 원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학원을 여러 차례나 찾으셨으시어 혁명유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정,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얼마전 만경대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면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75년에 걸친 연혁사는 우리 당이 혁명선열들에 대한 도덕의리에 끝없이 충실하여온 력사, 혁명위업계승에 명줄을 걸고 혁명가후비육성에 정성을 기울여온 력사이 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력사, 정규적혁명무력의 력사와 맞먹는 혁명학원들의 성스러운 장로의 빛나는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위대한 어버이의 그 사랑과 믿음속에 혁명의 계승자들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는 혁명학원 원아들의 씩씩한 그 모습은 절세위인들을 한다고 하신 위대한 나라, 강대한 조국의 밝은 미래이다. 공화국에서는 혁명유자녀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들을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동

감들로 키우고있다. 주체105(2016)년 4월 22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발전소현장련합지휘부에서 준비해놓은 글자폭집과 소묘작폭집, 사진화첩 등을 보아주시다가 일군들에게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는 직판사진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한 일군이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원들은 북방의 강추위속에서도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신념과 배짱으로 3호발전소언제를 일떠세웠다고 말씀올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절망 못할 요새가 없다고, 청년들이 지구를 들면 나는 그 지구를 들리겠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 청년들이 지구를 들면 나는 그 지구를 들리겠다! 바로 여기에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격난속에서도 끄떡없이 부강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비결이 담겨져있다.

역세인 뿌리와 위대한 계승은 공화국의 강대함의 근원이고 튼성번영의 확고한 담보이다. 부흥강국으로 향한 공화국의 앞길에는 넘어야 할 험산준령들이 수없이 많다. 허나 도전과 시련이 겹쌓이고 어떤 국난이 앞을 가로막아나서도 휘황찬란한 매일로 공화국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수 없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혁명위업계승의 력사를 세세대대 수놓아가기에 공화국은 력사의 모진 광풍에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으며 그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 기적만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공화국은 강하다. 강하여 영원히 이긴다! 본사기자 손지성



결세의 위인을 모시여 젊어지는 나라

《오늘의 행성은 참으로 우울해보인다.

해마다 닥쳐드는 자연재해와 끊임없이 지속되는 유행성병마는 이 행성에 생기와 활력을 빼앗고 로쇠와 침체를 더욱 몰아오고있다.

사회정치경제적혼잡과 무질서가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급증하는 피난민사태는 지구상 곳곳에서 미래에 대한 절망과 비판의 한숨소리가 높아가게 하고있다.

그러나 동방의 나라 조선은 약동하는 패기와 젊음에 넘쳐있다.

세기에 별치는 이 젊은 힘은 어디서 솟는것인지.》

이것은 어느나라의 인터넷에 실린 글이다.

하다면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며 끊임없이 약동하는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세상에 대한 강렬한 지향, 끊임없이 창조하려는 불같은 기질과 열정이야말로 젊음의 제일가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어디 가나 이런 패기와 정열, 생기와 활력을 느낄 수 있다.

너무도 불라보게 달려가고 너무도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비약하는 공화국이다.

분명 그 땅, 그 하늘이지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르며 래일은 무슨 사변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젊어지고 솟아오르는 나라.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이 전인민적인 지향으로 된 이 땅에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옛시절의것으로 되지 오래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1년이

면 강산이 변한다는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유행어가 나돌고있다.

세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키문화와 누르보리고 지경밖을 나다닐 때 이 나라 인민은 현대적인 마스킹스키장에서 초급, 중급, 고급주로를 따라 마음껏 눈갈기를 날린다.

수도 한복판에 바다물을 끌어다놓고 공동어교예를 관람하는가 하면 열도라도식 문수물놀이장에서 어른, 아이 할것없이 물보라속에 잠겨 행복에 웃고 떠든다.

다른 사회에서는 돈많은자들이 거들먹거리며 하는것으로만 생각하는 승마운동도 공화국에서는 인민이 마음껏 즐기고있고 부모없는 아이들

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도 국가의 보살핌속에 최상최대의 사랑과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있다.

발걸당은 곳마다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고 들는 소식마다 사회주의문명을 구가하는 기쁨의 소리인데 얼마전에는 또 련포탕에 인민을 위한 대규모음식바다가 펼쳐져 세상을 다시금 놀래웠다.

종이장우의 설계도가 땅위에 건축물로 일떠서는 속도 또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같은 속도이다.

평양에서는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 근로자들을 하높이 떠돌던 현대적인 고급주택들이 한해에 1만세대씩 일

떠서는가 하면 이번에 세상엔 보란듯이 건설된 거대한 련포은실농장도 불과 2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된것이다.

오늘 공화국은 세상을 놀래운 천리마의 속도, 평양속도, 80년대속도, 회전속도를 통가하는 새로운 조선속도로 내달리고있다.

젊음은 두려운것을 모르는 담력과 배짱, 왕성한 힘의 대명사이다.

천하를 호령하는 공화국의 담력과 배짱은 백두산의 메부리처럼 억세고 강하며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강대한 힘에 바탕을 둔것이다.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에 대

한 《붕괴》알삼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제재압박도수를 높여도 굴할줄 모르는 신념과 강인담대함으로 모든 난관을 박차며 승리의 힘찬 보폭만을 내걸고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세인은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김정은시대에 조선의 힘은 최대로 강해졌다.

지금 조선의 존엄과 기상은 우주만리에 닿아있다. 오늘날 지구는 조신을 축으로 돌고있다.》

《조선에는 조국보위도 조국건설도 (단숨에)의 정신으로 할수 있는 만능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최정예강군이 있다. 이런 군대를 가진 조선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젊음은 밝은 진도와 미래로 하여 아름다운것이다. 오늘 공화국을 불러 청춘조국이라고 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양양한 미래를 앞당겨 펼쳐가고있기 때문이다.

세월의 년륜이 감길수록 더욱 젊어지고 기운이 넘쳐나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자기 힘, 자기 기술로 이룩된 문명과 발전의 창조물들이 이 땅위에 아름다운 미래의 설계도를 펼쳐놓는다. 오늘날만이 아니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인민을 위한 무수한 창조물들.

하늘에서 나는 비행기도, 땅위를 누비는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도, 지하에서 달리는 지하철도 모두 자체의 힘과 지혜, 기술로 만든 주체의 낚이 것들고 자부심이 넘치는 재부들이다.

예술공연무대에서도 끊임없이 문명개화발전하는 이 나라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지향과 요구를 느낄수 있고 세계적수준의 국방발전전람회에서는 더욱더 강대해졌

이 나라의 무궁무진한 국력을 엿볼수 있다.

《김정은령도자의 정치야말로 국가와 사회에 합력 활력소를 주는 원동력이고 추진력이다. 진할줄 모르는 공화국의 젊고 역센 힘은 령도자의 젊음과 용맹, 신비의 정치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김정은령도자의 정치야말로 국가와 사회에 합력 활력소를 주는 원동력이고 추진력이다. 진할줄 모르는 공화국의 젊고 역센 힘은 령도자의 젊음과 용맹, 신비의 정치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부리가 든든하고 가지가 왕성하며 줄기차게 뻗어오르는 거목은 그 무성한 새순과 함께 더욱 역세게 성장하기 마련이다.

... * * ...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역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 공화국의 남녀로소 누구나 즐겨 부르는 《조국찬가》의 한구절이다.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안고 끝없이 비약하고 번영하는 공화국의 모습을 시사해주는 명목이다.

청춘의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게 내달리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기적, 번영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후대들을 위해 억만자루의 품을 들인다

이 땅 어디서나 아이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의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참으로 생각도 깊어지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아직은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지만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의 불변의 정칙이다.

지난해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시던 김정은은 김정은원수님의 절절한 음성

을 지금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조국의 미래엔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우선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 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그리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김정은은 원수님.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구한 인류발전사를 더듬어보아도 어린이를 키우는 문제는 자식을 낳은 어머니들과 한가정에 국한된것으로 되어왔지만 공화국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것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일로 되어왔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제일 좋은 이름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것을 그날에 김정은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째를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로동당시대 인민의 행복과 리상의 높이를 보여주는 건축물들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초고층살림집

평양을 감돌아흐르는 풍치수려한 원자핵의 돌레를 도는 전자의 자리길 대동강기슭을 따라 시원스럽게 뻗어 나간 미래과학자거리에 53층초고층살림집이 있다. 미래과학자거리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53층초고층살림집은



려명거리의 70층초고층살림집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녹색형거리의 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의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이다. 70층초고층살림집의 기반층에는 거리의 상업봉사시설들을 대표하는 종합상업구가 있다.



송화거리의 80층초고층살림집

2022년 4월에 완공되어 동평양의 집은 우에서 내려다볼 때에는 활짝 피어난 하나의 꽃송이를 연상시키다. 연건평이 16만여㎡인 80층초고층살림집의 세대수는 근 900세대에 달한다. 본사기자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행복한 때가정

10 여년만에 대지를 확보한 특류영예군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이 콩치처럼 흐르는 공화국에서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소행이 어디서나 활짝 꽃피어가고 있다. 얼마전 우리의 만년 평성시 양지동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 송만길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대지를 확보하게 된 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평범한 녀성이었다. 10여년전 송만길은 군사복무중 뜻밖에 부상을 입고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몇해후 그의 가정에 기적적으로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에게는 송만길에게 기쁨과 행복, 희망의 전부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울먹이며 말하였다. 「다른 애들은 명철날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원에 댕 갔었다는데...」 그 순간 송만길의 가슴은 아찔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즐겁게 걸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얼마나 그려보았던가. 허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바로 그날 그 일을 두고 함께 피로움에 모태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웃에서 살던 김명심녀성이었다. 송만길의 집을 때없이 찾아 영예군인가정의 크고작은



송만길 (가운데)과 김명심녀성 (오른쪽에서 두번째)

일은 제 집일처럼 돌봐주던 그는 그날도 부식물을 안고 찾아갔다 그 말을 듣게 되었다. 그날 밤 김명심녀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때부터 의사와 함께 송만길의 집을 찾은 김명심녀성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졌다. 그렇게 한해 또 한해가 흐르던 어느날 그가 오래동안 수소문하여 먼곳에 있는 다른 교장의 의사까지 데리고 왔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송만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올랐다. 김명심녀성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하지만 자기 병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있던 그는 치료를 거부하였다. 그러는 그의 귀전에 김명심녀성의 정경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자신을 위해서보다 아들을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의 말에서 송만길은 다시는 걸을 수 없었던 생각을 떨쳐버리게 되었다. 험치 않았다. 치료받기가 힘겨워질 때면 마음속에 동요가 일군 하였다. 하지만 다른 동네로 이사간 후에도 매일같이 자기를 찾아와 아글라글 애쓰며 정성을 다하는 김명심녀성의 모습앞에서, 희망과 기대를 안고 감격하는 자기의 두다리를 쓸어보곤 하는 그 뜨거운 눈빛을 보면서 나약해

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던가. 언제부터인가 그의 어머니는 집안의 길을 정성껏 닦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돌 한 개라도 있을세라 길바닥을 쓸고 또 쓸며 어머니는 식구들에게 품뻐어 말했다. 삼륜차를 탄 둘째가 어느때나 불편 없이 들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고향집에 제발로 걸어들어섰던 것이다. 「이 어머니도 어찌지 못한 너를 일으켜세워준 그 고마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니. 넌 정말 복이 있구나.」 그러는 어머니에게 송만길은 말했다. 「어머니, 고마운 사회주의 우리 제도복입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이 저에게 은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후날 송만길은 김명심녀성이 방역부문에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훌륭한 녀성이란것을 알게 되었다. 온 나라가 덕과 정으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조선이다.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는 사회주의대 가정에서 서로 돕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끝없이 꽃피어갈 것이다. 주영철

《장애자로 사느니 저세상에 가는게 낫다》

남조선에서 장애자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

몇해전 남조선강원도에서 사는 한 청년이 다리에 심한 통증을 입었다. 허나 누구도 통증을 입은 그를 돌봐주기는커녕 관심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 막다른 처지에 놓인 청년은 자기의 기막힌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중신병신이 되어 불쌍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를 이경으로 만든 이 사회에 대한 환멸과 원망이 더 심하니 저절로 죽고 싶다.」 이것은 비단 그 청년 하나만의 불행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장애자들은 초보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이렇게 전하였다. 「서울에 사는 한 장애자는 한쪽다리가 2~3cm정도 짧다. ...장애자를 용납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더이상 그가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다. 직업을 얻어보기 위해



본사기자 홍범식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조선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주제37(1948)년 10월 7일 이후 남조선에서 넘어와 립시로 판에서 생활하고있던 무림소장 리국로선생의 가족에게는 크나큰 영광이 차례지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그의 가족을 찾아주시셨던 것이다. 너무나 황송하여 큰절을 올리는 리국로선생의 부인을 만류하시며 수령님께서는 따듯이 인사를 하시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간 안녕 하십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국로선생의 가족이 38°선을 무사히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늘에야 시간을 뱉었다고 하시면서 좁은 리관방에서 많은 식구가 생활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장군님의 덕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되니 더욱이 행복하여 불편한줄 모르겠습니다.》

《려관아아 김소들이 하루밤 독어가는 곳인데 려관방에서 살림하러니 불편한 점이 많을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그들의 생활을 방해해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남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셔서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어찌된 그리도 살들하고 다 심하십니까?)

리국로선생의 부인은 남조선에 있을 때부터 삼도왜적을 벌벌 떨게 하시는 백두산장수에

대한 전설같은 소문을 들으면서 김일성장군님은 어떤분이실까 하는 호모의 정을 간직하고있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보고보니 첫 순간에 벌써 매혹되어 절로 마음이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잠시 동안을 두고도 방안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관아 주로 외국인들을 취급하기때문에 생활방식이 우리와는 좀 다르겠는데 아이들이 마음에 들어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선생의 부인은 다른것은 없는데 다만 아이들이 서양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었다.

《서양음식이러니. 그래 빵식사를 합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놀라와 하시면서 아무리 외국인들을 대상한다고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리관에서 우리 나라사람들에게 서양음식을 주는것을 보면 한심한 사람이라고 나무람하시었다.

《조선사람에게는 조선음식이 구미에 맞고 침대보다 따스한 온돌방이 더 좋습니다. 자기것을 무시하고 남의것만 다 좋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민족성까지 저버릴수 있습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리국로선생의 부인에게 참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실 오랜 선비가정에서 자란 그는 북조선공산주의자들이 쏘련으로 생활한다는 반동들의 악선전을 들을 때마다 우려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사람은 조선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교시하시며 그의 마음속 우려를 깨끗이 가져주시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격정에 휩싸여있는 그에게 오늘 저녁부터 조선음식을 보장해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집은 인촌해결해드려겠다고, 예로되는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온 가족이 건강하여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라고 다정히 이르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바라워드린 리국로선생의 부인은 받아들인 충격이 하도 커서 오래동안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정지활동을 하는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며 제노라는 술한 정치가들을 보아온 그가 세상에 다시없을 절세의 위인을 뵈었기때문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조선사람은 조선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오늘도 겨례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본시기자 박주혁

이역의 동포들에게 안겨주신 역센 신념

오늘 총련의 일군들과 제일 동포들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이역의 참바람속에서도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나아가는 이들의 자랑찬 모습에는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고향으로 모는 역센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서 키우시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고귀한 업적이 비껴없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연합체력이 사회주의체제를 력사무대에서 매장해버릴 야망을 품고 공화국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있던 1990년대초엽의 정세는 참으로 엄혹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제 81(1992)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에 온 리친규제1부장(당시)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조선인총합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이 접할수록 더욱 강된 힘으로 일머리 정열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서 승리에 승리를 떨치고있는 조국의 자랑찬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

과 반동들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회로 하여 공격의 화살을 우리 나라에 집중하고 사면팔방으로 공세를 들이치지만 우리는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평활한 전략전술로 반혁명적 공세에 혁명적공세로 맞서나감으로써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놈들의 온갖 책동을 저지파라시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그 어느때보다 두터워졌으며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하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신념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수령은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총성과 효성으로 당을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며 여기에 우리 당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다고 하시었다. 사회주의조국이 그토록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있는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교시는 총련총합단 성원들의 마음을 짝 사로잡았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는 지난 기간 강고분투하여 우리 나라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튼튼히 세워놓았기때문에 두려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미 튼튼히 뿌리를 내린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완성해나갈것이라고 하시었다.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념을

안겨주시며 애국애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가운데는 천리길과 10리길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주제83(1994)년 2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총련총합단의 한 책임일군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혁명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업무를 완성하자면 천리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겨우 10리밖에 가지 못하였다고, 그러나 자신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고있기에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반공화국압살책동들이 어느때보다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서도 승리를 굳게 확신하며 조국의 힘찬 전진과 발을 맞추어 제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려나가고있는 것이다.

최진욱



도교에서 진행된 금강산가극단의 특별공연 《봄향기》중에서 (2021년 4월)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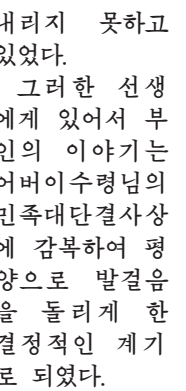
한 해외동포가 찾은 인생전환의 길 (2)

들모두의 가슴을 열어주시며 소박한 애국의 넋도 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러한 선생에게 있어서 부인의 이야기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에 감복하여 평양으로 발걸음을 돌려게 한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그는 마침내 《나는 왜 북조선을 방문한가》라는 출판명칭을 발표하고 평양방문의 길에 올랐다.

고향을 떠나 40여년만에 공화국을 방문한 선생은 그날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는 최대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뵈운순간 립창영선생은 회색의 위인만이 지닐수 있는 그의 비범한 품모와 자질, 소탈하신 친모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림창영선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선생과 같이 년세가 높으시고 민주운동에도 오랜 경험을 가진분이 미국땅에서 자신을 도와주겠다니 참으로 기쁘다고 하시었다.

림창영선생은 그 믿음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비록 민족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석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미력이나마 보태어 주석님을 도와 생각됩니다. 나는 주석님을 민족의 사표(학식이나 덕행이 높아 스승으로 뵈만한 사람)로 삼고 눈에 흠이 들어가는 날까지 애진하겠습니다. 다짐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빛바래 인생교목에 이른 립창영선생의 가슴속에서는 애국의 넋이 푸르게 자라고있었다.

어비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선생과 같이 년세가 높으시고 민주운동에도 오랜 경험을 가진분이 미국땅에서 자신을 도와주겠다니 참으로 기쁘다고 하시었다.

림창영선생은 그 믿음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비록 민족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석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미력이나마 보태어 주석님을 도와 생각됩니다. 나는 주석님을 민족의 사표(학식이나 덕행이 높아 스승으로 뵈만한 사람)로 삼고 눈에 흠이 들어가는 날까지 애진하겠습니다. 다짐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빛바래 인생교목에 이른 립창영선생의 가슴속에서는 애국의 넋이 푸르게 자라고있었다.

본시기자 전영민

1970년대중반기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발행되는 해외교포지 《국민의 소리》 편집자로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벌리고있던 립창영선생의 부인 리보배녀사의 공화국방문은 립창영선생에게 있어서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모란봉기슭의 정치좋은 곳에 속수를 정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서 리보배녀사의 부인을 따듯이 만나주시었다.

어비어수령님께서는 너사를 만나니 꼭 립선생을 만난것만큼이나 기쁘다고 매우 반가와하시면서 립창영선생이 오래동안 독립운동을 해온데 대해 오감게 생각한다고, 자신께서는 립선생의 애국주의사상에 매우 탄복하고있다고 하시었다.

부인으로부터 어비어수령님의 은정어린 믿음을 전달받게 된 립창영선생의 가슴은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마음으로 끓어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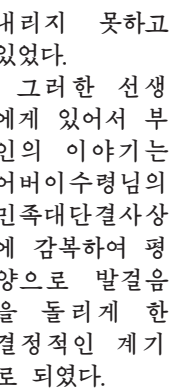
태양처럼 뜨거운 애국애족의 열기를 지니고 사랑과 믿음의 열쇠로 각이한 사상과 정견, 신앙의 문패를 단 사람

들모두의 가슴을 열어주시며 소박한 애국의 넋도 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러한 선생에게 있어서 부인의 이야기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에 감복하여 평양으로 발걸음을 돌려게 한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그는 마침내 《나는 왜 북조선을 방문한가》라는 출판명칭을 발표하고 평양방문의 길에 올랐다.

고향을 떠나 40여년만에 공화국을 방문한 선생은 그날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는 최대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뵈운순간 립창영선생은 회색의 위인만이 지닐수 있는 그의 비범한 품모와 자질, 소탈하신 친모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림창영선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선생과 같이 년세가 높으시고 민주운동에도 오랜 경험을 가진분이 미국땅에서 자신을 도와주겠다니 참으로 기쁘다고 하시었다.

림창영선생은 그 믿음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비록 민족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석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미력이나마 보태어 주석님을 도와 생각됩니다. 나는 주석님을 민족의 사표(학식이나 덕행이 높아 스승으로 뵈만한 사람)로 삼고 눈에 흠이 들어가는 날까지 애진하겠습니다. 다짐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빛바래 인생교목에 이른 립창영선생의 가슴속에서는 애국의 넋이 푸르게 자라고있었다.

어비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선생과 같이 년세가 높으시고 민주운동에도 오랜 경험을 가진분이 미국땅에서 자신을 도와주겠다니 참으로 기쁘다고 하시었다.

림창영선생은 그 믿음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비록 민족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석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미력이나마 보태어 주석님을 도와 생각됩니다. 나는 주석님을 민족의 사표(학식이나 덕행이 높아 스승으로 뵈만한 사람)로 삼고 눈에 흠이 들어가는 날까지 애진하겠습니다. 다짐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빛바래 인생교목에 이른 립창영선생의 가슴속에서는 애국의 넋이 푸르게 자라고있었다.

본시기자 전영민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며 (11)

총 환방 쓰시 않고 승리한 공중로우선

2003년 3월 4일 이 땅에 울리는 전쟁의 포성이런듯 미국과 남조선의 《특수리》합동군사연습이 개시되었다. 이날 미국방정대변인은 공화국에 대한 《신체공격》을 노린 장거리전투목적기 24대가 태평양상의 팔도에서 이동하고있으며 동북아시아지역에 더 많은 미군 무력을 전진배치할때 대한 명령이 떨어졌음을 밝혔다.

은 남조선방위 전시에나 볼수 있는 평음으로 진동하고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짙어졌다.

바로 이러한 때인 3월 5일 조선인민군의 어느날 비행장에서 대기를 헤가르며 여러대의 전투기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공화국의 신성한 령해상공을 침범한 미국의 전차출격기 《RC-135》를 맞받아 총격한 것이다.

미국은 이해의 2월 21일부터 연속 4일간에 걸쳐 이 정찰기를 9시경부터 무려 10여시간 무수단으로부터 원산만까지사이의 동쪽 공화국령해상공에 불법침입하여 반복 비행시면서 동해안일대의 중요대상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2월 24일에는 해외기지에서 리북한 《RC-135》정찰기가 공중에서 《KC-135》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정탐행위에 광분하였다. 하루장까지 무분별하게 감행되는 《RC-135》정찰기의 거듭되는 공중정탐행위에 치우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정찰의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만단의 전투대세를 갖추고있던 조선인민군 추격기비행사들은 리북한지 얼마 안되어 공화국령해상공에서 미군의 전차정찰기 《RC-135》를 포격하였다.

《RC-135》정찰기는 《보인-707》를 개작하여 만든 최첨단전자 및 광학정찰기제로 1 000여km까지의 상대속 중심을 정찰하는 간첩비행기였다. 17명의 미군정보요원들이 항시적으로 타고있는 《RC-135》정찰기는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활동을 목적으로 출격하는 것이다.

이날 미군정찰기는 조선동해상공에서 공화국의 군사대상물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하려고 날아들어왔던 것이다. 정시훈련을 통하여 목적의 슬기와 용맹을 키워온 조선인민군 추격기비행사들은 공화국의 신성한 령공에 침입한 적비행기의 꼬리를 바짝 물고 추적하다가 대담하게 15m까지 접근하여 적들을 기절

추공케 하였다. 조선인민군 추격기비행사들이 단방에 좌멸기를 위한 조준태세를 갖추고 맹렬히 추격하자 절절한 미군정찰기는 더는 정탐행위를 하지 못하고 급선회하여 일본의 가네나공군기지로 쫓겨나 버렸다. 적들은 얼마나 혼쫓이 났던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하며 부조심비행기가 발견되자 겁고 정찰기가가이에까지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짓 모르겠다. 북조선비행사가 사격단추만 눌렀다면 모두 황천길에 이 되었을 것이다. 북조선비행사들의 비행기술이 보통 높지 않다고 비명을 질렀다.

미국은 이날의 사건을 《제2의 《EC-121》 사건》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령공에 대한 《RC-135》정찰기의 비행을 단방간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세계의 군사평론가들은 《미국정찰기의 정탐활동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놀리워 미국정찰기들이 자기 나라 령공에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정탐행위를 하는것을 알면서도 감호도 견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북조선에 서만은 미국의 이러한 강도적행위가 통하지 않고있다. 이

번 비행기추적사건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오직 북조선만이 미국에 타격을 하고있다.》라고 평하였다.

미군정찰기 《RC-135》사건은 명백히 공화국무력과 미국무력과의 직접적이며 전면적인 대결전이었다.

조선인민군 추격기비행사들은 파렴치하고 오만한 미국의 무력과 맞서 한발 날리지 않고 단 환방의 조준시도로 적들을 혼비백산케 하였으며 도주하게 만들었다.

2003년 봄 조미간의 공중조우전의 결과는 그대로 조미대결에서의 승자가 누구이며 강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산 증거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공중조우전이 있는 후 인민군지휘원들에게 이번엔 우리 추격기비행사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미제침략군정찰기를 찾아버림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을 다시한번 떨쳤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세계는 이 조미간의 순간적인 조우전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그 어떤 현대적인 비행기나 군사장비들도 절세위인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만다는것을 생생한 화적으로 확인하였다.

하게 보여준 산 증거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공중조우전이 있는 후 인민군지휘원들에게 이번엔 우리 추격기비행사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미제침략군정찰기를 찾아버림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을 다시한번 떨쳤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세계는 이 조미간의 순간적인 조우전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그 어떤 현대적인 비행기나 군사장비들도 절세위인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만다는것을 생생한 화적으로 확인하였다.

본시기자 박철남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굴욕외교 중단하라》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장 —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징용피해자문제를 종속적으로 처리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면서 굴욕외교를 중단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4년전 남조선대법원이 일본의 전범기업에 대상으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을 내린데 대하여 언급하고 《윤석열(정권)의 일제과거사 종속해결과 남조선일본, 남조선미국일본군사협력유지금이 도를 넘어서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윤석열역도 과거사문제해결에서 일본의 립장을 따르고있다고 하면서 지난 유엔총회를 계기로 일본수상과의 《락시회담》이라는것을 열고 《한》일관계의 조속한 해

결》만을 공언하고 돌아오는것은 《태일굴욕외교의 극치》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근 역적패당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문제를 일관한 배상공을 대안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논의하고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일본의 요구에 맞게 종속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이른바 (가치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울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역적패당은 미국 주도의 유엔 《북인권결의안》 조작책동에 적극 가담해나가고 있는가 하면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를 통한 반공화국 압박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또한 인권소레기들을 비롯한 모략군들을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적극 부추기고있고 《북인권결의안》의 조속한 결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벌려놓았으며 《북인권현황보고서》를 발간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성에 먹칠을 하고 국제무대에서 거덜이 난 반공화국외교정책분위기를 국내결정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펼쳐지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인 공화국에서는 《인권문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애당초 존재할수도 없다.

시책은 해당 나라와 사회의 성격에 보여지는 속도이다. 어떤 시책을 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시해나가는가에 따라 해당 사회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북부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이 결

정되게 된다. 공화국의 시책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며 그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충실히 보장해주는 인민적시책이며 그 모든 시책들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세워지고 철저히 실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인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안는 혜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품어안는 하늘같은 그 은덕이 꽃피워준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으려》의 노래소리가 날로 높이 울려 퍼지는 인민의 세상인 공화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불구하고 그 무슨 《북인권문제》에 대해 떠드는것이야말로 밝은 빛을 뿌리는 태양도 검다고 하는것과 같은 생애지도 허황한 날조로서 역적패당이 동족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것을 보여주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제 집안의 비참한 인권실상을 가리워부려는 흑백전도의 가련한 추태이다.

사실 남조선이야말로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폐허지대이다.

남조선 각계층의 절규와 류형어들을 높고서도 남조선의 인권실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잘 알수 있다.

《혈(혈)조선》, 《지옥불반도》, 《내 집마련의 꿈》, 《물가를 잡아달라》, 《이

심대는 태반이 백수》, 《졸업은 곧 실업》,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집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세대》, 삶자체를 포기하는 《삶포세대》...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생이 고달랐으면 자기가 사는 땅을 《지옥》이라고 저주하고있겠는가. 생의 막바지에서 해마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남조선은 해를 《자살공화국》, 《자살왕국》이라고 부를수 있는가.

이처럼 남조선을 암흑사회, 인간생지옥으로 만든자들이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허바닥에 울리고있는것이야말로 파렴치,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인권문제》에 대해 울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 인민들을 《실치류》, 《먹여만 죽여주는 개, 돼지》라고 모독하는자들이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자체가 정의와 량심,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울수 없는 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이 아무리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미쳐날뛰어도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만드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가리울수도, 먹칠할수도 없다.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오히려 구악한 대결광신자, 추악한 위선자, 흉악한 인권말살자인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세상에 더욱 날암이 드러낼뿐이다.

주우성

굴욕외교 중단하라

외교)의 미명하에 일본의 죄를 덮어버리려는 윤석열(정권)의 태일굴욕외교는 단정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시기자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전쟁연습소동을 준렬히 단죄한다

포연과 굉음이 그치지 않은 북침전쟁소동의 1.0월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대결 광풍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난 10월에 감행된 대표적인 북침전쟁연습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지난 10월 4일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공격편대 비행 및 정밀폭격훈련을 감행하였다.

그리고는 《북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원점》을 정밀타격할수 있는 능력, 《윤정태세》를 갖추었다고것을 보여주었다고 떠들며 허세를 부리었다.

한편 남조선호전광들은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주변해상에서 미국과 그 추종국들과의 연합기뢰훈련을, 6일에는 조선동해상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단, 일본해상 《자위대》 전투함선과 연합미사일방어훈련이라는것을 벌여왔다. 뿐만아니라 악명높은 미군특수부대와 《참수작전훈련》, 《연합신속대응훈련》까지 강행하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며 전쟁미치광이, 대결광의 본색을 드러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행위도 공공연히 벌였다. 10월중순 역적패당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련일 포사격을 감행하며 짙은 화약내를 풍기었으며 지어는 최대의 열점지역인 서해해상에서까지 포사격을 해대면서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의 호전적책체는 10월말 남조선전역에서 《2022 호국훈련》을 감행한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남조선해군 및 해병대, 공군 작전사령부와 특공특수전사령부, 특군항공사령부, 싸이버작전사령부, 수송사령부, 화생방사령부, 심리전단의 병력들과 각종 합성 및 전투기들, 장갑기재들이 동원된 가운데 벌어진 상륙훈련은 철저히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이었다.

더우기 《호국훈련》에 처음으로 남조선강점 미군까지 끌어들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동족대결광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실증해준다. 이러한자들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이아마로 언어도 단이더 적반하장적 극치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의 광란적인 전쟁대결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최악으로 치닫

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이리다진자 전쟁나갔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윤석열의 질주를 막아야 전쟁을 막을수 있다고 하면서 역적패당을 단죄배격하는것은 너무나 용당하다.

그런데도 전쟁열에 쫓겨온 윤석열역적패당은 11월에 들어와서도 외세와 함께 대규모적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고있다.

북침전쟁연습으로 흘러온 10월과 광기어린 대규모북침연합공중훈련으로 이어진 11월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불구름을 다시시각각 몰아오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경거망동에는 가장 치절한 대가가 뒤따를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며 미국과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과 역적패당은 이번 전쟁연습에 스텔스전투기 《F-35A》와 《F-35B》, 전투폭격기들인 《KF-16》 및 《F-15K》, 공중급유기, 고고도정찰기, 조기경보기, 수송기, 작습기, 무인기 등 240여대의 각

종 군용기들과 병력을 투입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공중훈련을 벌이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공격형핵잠수함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전략폭격기까지 임의의 시각에 연합공중훈련에 동원시키려 하고있다.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무모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역적패당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연합공중훈련이 얼마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가 하는것은 이번 군사훈련에 동원된 전투기대수와 훈련규모가 북침전쟁연습상 전례없이 방대하고 훈련명칭 역시 지난 1990년대초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사용한 작전대호인 《데저트 스톰》(사막폭풍)의 명칭을 본받았을 것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더욱 간파할수 없는것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정권종말》과 같은 망발을 공공연히 웨치면서 공화국의 700개이상에 달하는 주요요직을 타격하는 연합공중훈련을 벌이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강행하는 이번 전쟁연습이 철두철미 북침전쟁시연회,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불쌍스럽게 지랄하는것과 조금도 다를바없는것이다. 순전히 체면유지로 허세를 부리는 미국상전을 믿고 만용을 부리는 역적패당이 가소롭기 그지없다.

조선반도는 미국이 주권국가를 제 마음대로 들이치고 몰락하던 중동이나 동유럽이 아니다. 또 미국이 저들의 광장에 도도히 굽이친 조선식절대병기들의 장엄한 흐름을 기절초풍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다. 하기는 그 무지몽매한 머리,



비참하리라 전쟁광들의 운명은

볼구름 몰아온다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 역적들이 화약내에 찌든 전쟁광들이 야망의 손 맞잡고 벌려놓은 《한미연합공중훈련》

가소롭구나 전투기들도 최첨단 출격회수도 최대 《력대 최대규모》라고 제법 으시대는 그 모양

실컷 허세를 부려보아라 목이 쉬게 헛나발을 불어봐라 우리의 눈엔 강자앞에 질겁한 비렬한자들 단말마적발악으로 안겨들거니

보여온다 《강력한 대응》을 떠드는 궤변에서 공포에 질린자들의 가련한 물결이 소란스런 비행기의 굉음에서 비참한 멸망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독특히 알라 상대가 누구인가를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다지고 다져는 중요와 분노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천만민민 역적의 보검을 틀어쥐고 원수적멸의 의지를 불태우는 땅이다

가중스런 침략의 날개 번득이며 전쟁의 광기로 하늘을 어지럽혀도 우리의 눈엔 들끓는 부나비들일뿐 신성한 우리의 명도를 침범하는 순간 어리석음 깨달을 순간조차 없으리 더러운 형제조차 찾을길 없으리라

덤벼들라 전쟁의 부나비들이 타죽을줄 모르고 등불에 날아드는 부나비 이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다 죽어 묻힐 땅조차 없어 불속에 재가 될 전쟁광들의 숙명이다!

정용성

리철준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반미, 반전, 반윤석열투쟁 고조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특히 이번엔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수많은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감행한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은 공화국을 겨냥한 극히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을 노린 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해나선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현실로 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남조선미국합동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할것을 윤석열역적

패당에게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전국민총행동》, 계례하나, 민주주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문명, 생명 등을 통해 윤석열역적패당이 민족공멸, 참사를 일으킬 남조선미국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단죄규탄하며 반 《정부》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주민들의 생명, 안전, 평화에 역행하는 무력시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긴장과 대결, 민족대참사를 초래할수 있는 전쟁연습을 중단할것을 들이치고있다. 각계층 투쟁단체 성원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청사,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주변에서 《삼천리군수장군을 화약고로 만들지

말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윤석열역적패당과 미국을 단죄규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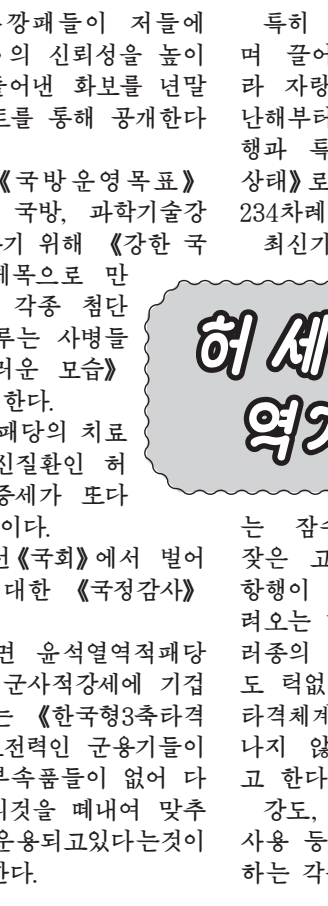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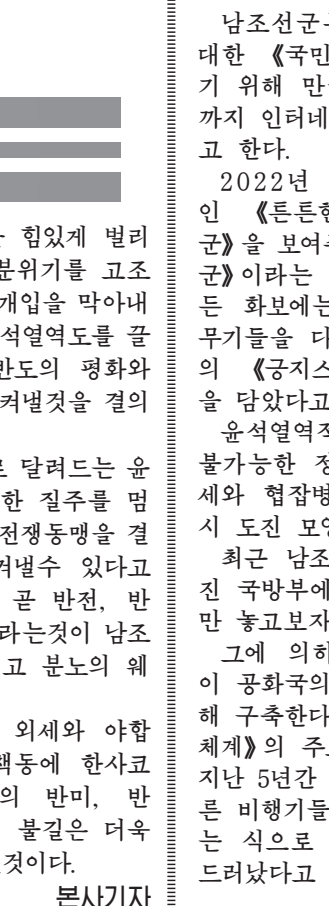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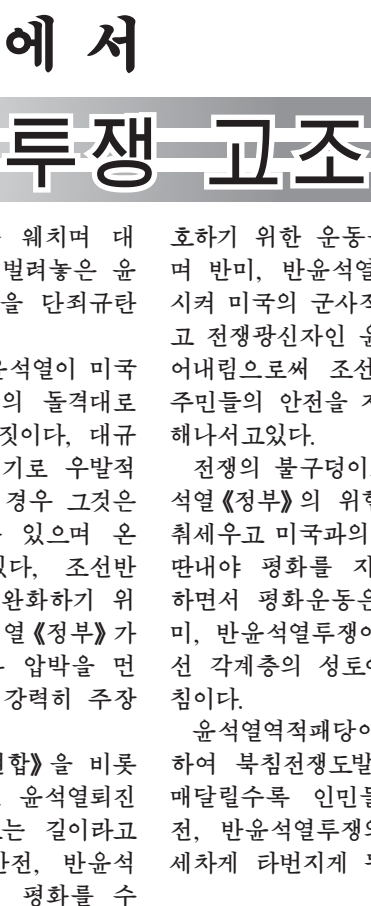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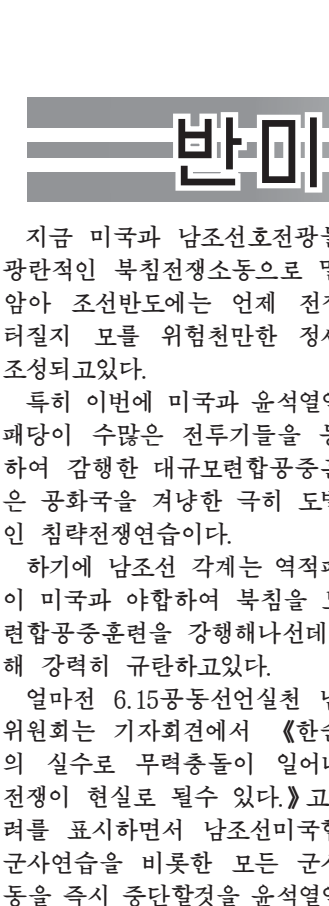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이 미국 주도의 대북침략전선의 돌격대로 자처하는것은 머저리짓이다.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을 계기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핵전쟁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온 민족이 전멸할수 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윤석열 《정부》가 《대북군사적행동》과 압박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한 청년학생단체들도 윤석열이 단이더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미, 반전, 반윤석열세력은 총단결하여 평화를 수

호하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려 반미, 반윤석열분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의 군사적개입을 막아내고 전쟁광신자인 윤석열역적패당을 끌어내림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낼것을 결의해나서고있다.

전쟁의 불구덩이로 달려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질주를 멈춰세우고 미국과의 전쟁동맹을 결판내야 평화를 지켜낼수 있다고 하면서 평화운동은 곧 반전, 반미, 반윤석열투쟁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층의 성토되고 분노의 웨침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한사코 매달릴수록 인민들의 반미, 반전, 반윤석열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남조선군부강대들이 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낸 화보를 연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한다.

2022년 《국방운영목표》인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강군》을 보여주기 위해 《강한 국군》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화보는 각종 첨단무기들을 다루는 사병들의 《공지스러운 모습》을 담았다고 한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치료 불가능한 정신질환인 허세와 협잡병증세가 또다시 도진 모양이다.

최근 남조선 《국회》에서 벌어진 국방부에 대한 《국경감사》만 놓고보자.

그에 의하면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기댄 핵추진 항공모함 《한양호3축타격체계》의 주요직렬인 군용기들이 지난 5년간 부족품들이 없어 다른 비행기들을 대체하여 맞추는 식으로 운용되고있다는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본사기자

허세병자들의 역겨운 추태

특히 막대한 혈세를 바쳐가며 끌어들이는 첨단스텔스전투기까지 자랑하던 화보를 연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한다. 2022년 《국방운영목표》인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강군》을 보여주기 위해 《강한 국군》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화보는 각종 첨단무기들을 다루는 사병들의 《공지스러운 모습》을 담았다고 한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치료 불가능한 정신질환인 허세와 협잡병증세가 또다시 도진 모양이다. 최근 남조선 《국회》에서 벌어진 국방부에 대한 《국경감사》만 놓고보자. 그에 의하면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기댄 핵추진 항공모함 《한양호3축타격체계》의 주요직렬인 군용기들이 지난 5년간 부족품들이 없어 다른 비행기들을 대체하여 맞추는 식으로 운용되고있다는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본사기자

배영일

평양의 가을풍경



록음우거졌던 거리들이 어 느새 가을빛으로 물들어 노 랑고 붉은 잎사귀가 바람 에 날리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독특한 가을정서를 안겨 준다.

천하절정의 구슬다락 경루 동, 세상에 볼도 없는 인민 의 리상거리 송화거리, 창천 거리, 미태과학자거리의 가로 수들과 중앙식물원, 과학기 술전당, 류경원, 인민아외방 상장, 룡라인민유원지를 비 롯한 공원과 휴식터들...

훌륭히 일떠선 수많은 창 조물들이 평양을 감돌아흐르 는 대동강, 보통강의 푸른 물결과 단풍진 나무들로 하 여 더 이채롭게 보인다.

이 계절 평양의 명승지들 에 펼쳐진 가을풍치는 또 열 마나 장관인가.

마치 모란봉과도 같이 생 김새가 기묘하고 특이하여 예 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 아온 모란봉,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인민의 명승지로 더더욱 빛을 뿌리는 모란봉 은 한쪽의 아름다운 미술작 품을 연상케 한다.

노란 잎새 때인 은해나무들 과 붉은 잎새를 자랑하는 단 풍나무들, 그 사이사이에서 더 푸르러보이는 소나무들로

모란봉은 한층 더 화려하고 신선하게 채색된듯싶다. 소담한 단풍나무까지 드 러워진 평화정이며 모란봉의 단풍을 담아내고 출렁이는 못가, 자연의 감미로운 정서 에 몸도 마음도 한껏 취한 사람들의 모습...

풍치수려한 이곳에서 화관 을 펼치고 열심히 그림을 그 리고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 어더를 둘러봐도 아름 다운 평양의 가을풍경이다. 단풍든 가을풍치를 감상하 며 아침저녁 출퇴근길을 이 어갈 때면 머리가 맑아지고 새 힘도 솟아나는것만 같다 고, 올해에 심은 채색수종의 나무들에도 단풍이 물들어 풍치를 물구는것을 보니 보 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금시라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이 절경을 어찌 자연의 조 화라고만 하랴.

나날이 진행되는 평양의 모 습이, 창조와 혁신의 숨결로 맥박치고 평평한 미래를 향 해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의 모습이 일만단풍에 어리어 더더욱 수려한 평양의 가을 풍경이다.

본사기자 림 광 훈

락랑박물관을 찾아서 (8)

고조선후기의 좁은옷단검관계문화를 계승한 락랑문화

우리는 락랑문화시기의 무 기장구류구획도 돌아보았다. 동행한 남경회택임강사는 락 랑문화시기의 원거리사격무 기와 근거리전투무기 그리고 방어장비들에 대하여 해설해 주었다.

원거리사격무기인 쇠뇌가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B.C. 3세기이전이라고 한다. 활과 나무를, 발사장치로 구성되 어있는 쇠뇌는 기계적성능과 구조가 아주 훌륭하여 일명 기계활로 불리워졌다.

이러한 쇠뇌의 발사장치를 이 정백동무덤에서 발굴되 었는데 당시의 높은 무기설 계 및 제작기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정백동37호 나 무과무덤에서 발견된 120cm 정도의 《락랑단검》도 전시 되어있었는데 활재는 대부분 복판부분이 넓고 양옆으로 가면서 좁아지고 양쪽 끝부 분에는 청동으로 만든 활꽃 이가 끼워져있었다.



고조선후기 이른시기부터 전통적으로 쓰인 무기인 좁 은옷장검의 한가운데는 세 로 두드러진 속대가 있는데 그것은 자루를 꿸수 있게 되어있었다.

남경회택임강사는 좁은옷 단검은 비파형단검의 후신으 로서 고조선후기문화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때문에 고조선후기문화를 좁은옷단검관계문화라고도 한다고, 좁은옷단검은 나무 껍두껍을 쓰던 시기에는 물 론 귀틀무덤을 쓰던 시기까 지 쓰였다고 말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전시된 쇠단검과 쇠장검, 고리자루 쇠칼들은 모두 검몸과 검자 루, 검자루땀추개 등을 따 로 만들어 조립할수 있게 되 어있는데 이것은 락랑문화시 기 무기장구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의 하 나이라고 한다.

락랑문화시기의 유물 갖춤새에서 중요한 구 성부분을 이루는 무기 장구류들을 돌아보면서 당시 우리 선조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지역에서 고조 선후기의 좁은옷단검 관계문화를 계승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 켜왔음을 잘 알수 있 었다.

장 속 영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안국사 9층탑

평성시 봉학동에 있는 사찰인 안국사 태평루의 앞에 있는 탑이다.

대체로 고려중기이후의것으 로 보고있다. 이 탑은 깨들 로 만들었으며 평면은 정4각 형이고 높이는 6.23m이다.

탑은 현재 2층의 기단과 8층의 탑몸, 탑머리로 되어 있다.

아래기단의 매개 면에는 2개씩의 연꽃모양을 새겼 는데 매개 오목이의 아래복 판에는 고사리꽃뿔모양상의 장식을 놓았다.

윗기단은 아래기단보다 락 높으며 그 매개 면에는 3개씩 의 기둥을 둘쳐 두 구간씩으 로 나누었다. 그리고 아래기단 갑돌움편과 윗기단 갑돌움편 에는 각각 복련 과 양련을 둘우 새겨 고려탑의 맛을 돌구었다.

복련을 살지 게 하면서 랑모 서리의것과 가운 데꽃잎은 겹잎으 로 하였으며 랑 모서리꽃잎의 마 구리는 귀꽃으 로 마감하였다.

양련은 여기 에 대조되게 선 새김으로 보일 듯 면꽃잎을 형 상하였다.

탑몸은 지금 8개 층만 남아있 다. 몸돌의 랑모 서리들에는 기둥 을 낮게 돌렸으며 1층 몸돌정 면에는 문장식 을 하였는데 그 속에 사리구멍인 듯한 네모구멍이 드러나보인다.

지붕돌들은 높을편이며 매층 3단씩의 처마받 침이 돌쳐졌다.

처마선은 가 운데부분은 곧

게 과고 랑쪽은 가볍게 들어 올렸으며 추녀끝에는 풍경을 달았던 흔적이 남았다. 탑머 리에는 보주형탑머리의 부분인 듯한 둥근 돌이 있어져있다.

안국사9층탑은 차례줄임을 크게 주지 않고 기단과 몸돌, 지붕돌의 높이를 높여 전반적 으로 위로 솟아오르는듯이 느껴지게 하였다. 이 돌탑은 안 국사가 고려시기에도 운영되었 다는 증거로 되며 당시 돌탑진 축술과 조각술을 연구하는데 가치있는 유산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4.25 팀 국내최강자 우승컵을 들어올린다

전반적선수들의 육체기술적 준비가 좋은 4.25팀은 상대 팀들에 대한 경기전술을 유계 세우고 강한 공격력을 발휘하 여 이번 1부류축구연맹전참가 팀들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였다.

세우고 강한 공격력을 발휘하 여 이번 1부류축구연맹전참가 팀들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였다.

전반적선수들의 육체기술적 준비가 좋은 4.25팀은 상대 팀들에 대한 경기전술을 유계 세우고 강한 공격력을 발휘하 여 이번 1부류축구연맹전참가 팀들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였다.

수행하였다. 기관차팀, 리명수팀, 압록강팀도 자기식의 독특한 경기운영방식으로 훌륭한 경 기모습들을 펼쳐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 기었다.

2021-2022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부류축구연맹전 시상식이 5월1일경기장에서 진 행되었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고 높

은 기술과 경기도덕성을 발 휘한 팀과 선수들에게 우승 컵과 메달 등이 수여되었다.

이번 1부류축구연맹전 최 우수선수상은 4.25팀의 원성 선수가, 우수선수상은 기관 차팀의 김준진선수가, 최고득 점자상은 압록강팀의 최우성 선수가, 최우수문지기는 리 명영의 유광준선수가, 경기도 덕상은 기관차팀이 받았다.

본사기자



사화

연암동과 박지원 (4)

글 리성 우, 그림 채대 성

이 시기 연암의 생활은 배 우 궁핍하고 어려웠으나 이때 에 그의 실학사상과 문학창 작 및 저술활동은 일대 전성 기를 기록하고있었다.

사상가, 저술가로서의 그 의 명성은 이 시기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제자들과 문인청년들이 존경 하여 부르던 《연암선생》이 라는 별명인 연암이라는 호 로 아주 굳어진것도 이 시 기였으며 연암의 궁핍한 생 활을 딱하게 여기고있던 규 장각 직제학 유언호가 연암 동 가까운 곳인 개성의 류 수조 전임하여 나온것도 이 시기였다.

연암동에서 연암의 독서저 술활동은 매우 방해하고 다 방면적인것이였다.

그의 말년의 유명한 농정 건의서인 《파농소초》의 저 술자라고 실권경험도 이 시기 에 마련된것이였다. 연암 박 지원의 생애와 창작활동에서 연암동에서 보낸 10여년이 실 로 중요한 기간이었음은 루 루이 론증할 필요도 없는 일 이다. ...

정조가 즉위한지 4년이 되 는 1780년 봄부터 오만방자 한 홍국영을 처벌해야 한다 는 조정의 논의가 일어났다. 정조는 하는수없이 홍국영을 강원도로 류배보내었다. 홍국영이 조정에서 축출됨 으으로써 연암은 얼마간 자유 로이 행동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암은 연암동시골을 떠나지 않았다.

몸이 비대하고 남달리 여 름을 타던 연암은 그해 6월 에 숲이 울창하고 산이 막히 여 찌는듯이 덥고 밟으면 모 기와 파리의 성하에다가 논고 에서 울어대는 맹꽁이소리가 시끄러워 시골을 떠나 한양 본집으로 돌아왔다.

연암은 연제나 여름 한철 을 한양에서 보내었다.

녀중 하나가 집을 지켜주 고있었는데 연암이 도착하자 주인을 대접할 길이 없어서 큰 변이 났다고 울며불며 야 단을 하더니 어디론가 도망 쳐버리고말았다. 밤 지울줄 사람도 없어서 연암은 행랑 집에 머물고 지냈는데 그 들과 허물이 없었다.

행랑집사람들도 어른, 아이 할것없이 즐겨 연암의 시중을 들어주었고 한가할 때는 연암 의 옛말에 귀를 모으면서 한 집안식구처럼 지내었다.

연암은 안팎의 모든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이 밤을 해주 면 먹고 없으면 말고 며칠이 고 문득을 베고 누워서 책을 읽는데 망정도 쓰지 않고 맨 머리바람으로 지내었다.

하루는 문하생인 리서구가 연암을 찾아왔다.

그때 연암은 끼니를 건는 지가 벌써 나흘째였는데 망 건도 없는 맨머리, 맨발바람 에 창문턱에 발을 걸치고 누 워서 행랑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선생님!

리서구가 인사를 하자 연암 은 일어나 앉았다.

《오, 랙서가 왔나?》

《요즈음은 어떻게 지내십 니까?》

《허허, 물 좋고 공기 좋은 연암동에서 지냈더니 앓는 법을 모르는데.》

연암은 리서구가 너무나 작 듯이 레철을 차려놓자 허 화없이 본래대로 문득을 베 고 누우면서 빙그레 웃었다.

《락서가 왜 그리 말이 번 다해졌나. 어서 이리 올라와 앉든가 편히 눕든가 소ئن대 로 하게. 가져온 글이 있으 면 내놓을것이요, 술이 있으 면 따를것이 다른 말이야 어디 쓸데가 있나?》

리서구는 그제야 굳어진 자세를 풀며 연암의 곁에 와 서 편히 앉았다. 이때 마 침 행랑사나이가 남의 지붕 을 이어주고 품삯을 받아가 거 겨우 저녁밥을 지어 들 여왔다. 사흘만에 요행 생긴 돼시이라고 통말을 하면서 연 암이 상을 받는데 리서구가 소매속에 감추어가지고는 사 기술병을 꺼내놓기에 한잔씩 나누어 마시었다.

그런데 칠없는 행랑어린애 가 무슨 일때문인지 밤투정 을 하면서 밤을 먹지 않고 정정 울었다. 아이의 아버지 되는 행랑사나이가 열리다 못 해 팔을 내면서 아이를 육 했다.

《벌어먹을 녀석같이... 연암선생님도 달게 드시는데

네갯놈이 뭐가 돼서 투정질 이야. 네갯놈 먹이지고 종일 남의 지붕우에 올라가 썩은 북대기먼지를 들었나 말이나 먹지 않았으면 그만두거라. 개나 먹이겠다.》

행랑사나이가 우는 아이의 밥을 훔쳐서 개에게 주고서 《그걸 풀수면 썩 밖에 나가 죽어없어져라.》 하고 욕질을 하면서 망쩍같은 손바닥으 로 애너적의 궁둥이를 두어 번 퇴게 갈기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분위가 이렇게 되자 연암 은 나훈만에 생긴 밥이지만 제대로 물수가 없었다. 술가 락을 그대로 내려놓고 행랑사 나이를 타이렀다.

홀러지나갔다.

넌직한 사랑방에 들어서자 리서구는 품속에서 밀봉한 편지 한통을 내놓았다. 연암 의 팔촌형인 금성위 박명원이 써보낸 편지로서 청나라 에 가는 사절단이 이달안에 떠나게 된다는 소식이었다. 정사는 자기이고 부사는 정 원시, 서장관은 조정진으로 정해졌는데 문장으로 이름달 은 연암이 동행하여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겠는가 하는 내 용이었다.

편지를 읽고난 연암은 놀 람 정도로 흥분하면서 기뻐 하였다.

《내 평생에 한번 꼭 이루어보리라 마음먹었던것을 비

판네.》

연암은 팔촌형 박명원을 만나러 갈 준비를 서둘렀다. 그해 6월 24일에 연암은 압록강을 건넜다.

말안장 랑쪽에 부담주머니 를 달고 왼쪽엔 벼루, 오른쪽엔 붓 한자루, 먹 한장, 작은 공책 네권... 이것이 그 의 행장의 전부였다.

사실행장은 압록강을 건너 서 33개 역참에 2천 30여리 의 먼길을 거쳐 드디어 8월 1일에 연경(베이징)에 도착하 였다. 연경에서 나흘을 머무 르고 피서차로 열하에 나가 는 청나라 황제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먼길을 떠났다. 열하는 연경에서 동북쪽으로 420여리를 더 가야 하는 곳 이었다.

멀고 험한 곳이었지만 연암 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 지 않기 위해 정사일행을 따 라 밤낮으로 말을 달려 8월 9일 열하에 도착하였다.

열하에서 청나라의 이름있 는 학자들과 만나 담론하고 열하의 절경들을 두루 구경 한 다음 다시 연경을 거쳐 그해 8월말경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조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연 암은 다시 연암동으로 들어 오 《열하일기》를 저술하기 시작하여 이 방대한 세계적 인 리행기를 불과 몇해사이 에 연암동의 초라한 초가집 에서 완성하였다. 《열하일 기》는 단순한 리행기가 아니 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풍속, 제도, 역사, 교적, 인 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실 상을 진실하게 그려놓은 작 품이었으며 연암의 실사구시 의 실학사상을 알기 쉽게 전 개해놓은 일종의 백과전서적 인 저작이었다.



두뇌활성화에 좋은 아침식사

학업성적이나 사업능력면에서 아침식사를 꼭꼭 하는것이 좋다고 한다.

연구자들이 아침식사를 하면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험을 해보았다.

아침식사전과 아침식사후 뇌파를 측정하고 비교해본데 의하면 식사후에 두뇌가 보다 활성화되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본사기자

손발의 체온 역시 아침밥 을 먹고난 후 1.5~2℃가량 올라갔다.

연구결과는 아침식사를 한 학생들의 암기력이 그렇지 않 은 학생들보다 3%정도 더 높 은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므로 학업성적뿐 아니 라 건강을 위해서도 아침식 사를 꼭꼭 하는것이 좋다.